

70호, 2007.11

책을 열며 / 대선주자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 문홍주

교양자료 / 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 / 교육팀

연속기획 / 국방예산 줄여 복지와 통일비용으로! / 오혜란

연속기획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 막아내고 우리땅을 지키시다 / 박종양

사람 /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을 이루어낸 주역들 / 신재훈, 김원식, 최희준, 김숙희, 김정훈, 박석진, 정동석, 백창욱 / 최경순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회원에서 상근 활동가로 / 박희정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금강산 여행 참가기 / 김미영

회원들의 이야기마당 / 안동평통사, 제5기 시민학교를 돌아보며 / 한철희

12월은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대통령 선출이 있는 달이다. 예전 같으면 연말과 크리스마스 예다 선거 분위기에 시끌벅적 할 텐데 아직은 차분하다. 민중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말해주는 듯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아니 시대정신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사라진 것인지 실종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시대정신을 논하는 것조차 식상할 정도로 모두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다. 이른바 냉전 반공 수구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좌파세력에 빼앗겨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경제문제를 대표적 이슈로 내세운다. 보수의 깃발아래 뿔뿔 뭉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자며 목소리를 높인다. 경제살리기에서 여론조사의 선두를 달린다는 모 후보의 경제관을 살펴보면 가관이다. 불도저로 산하를 깎아 대운하를 개발한다는, 7·80년대 유신에서나 볼 수 있던 경제개발공약이 그의 경제살리기 핵심이다.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개발독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요즘 그가 BBK 문제를 비롯하여 도덕성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으나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혹 의외의 결과에 따른 대안적 후보까지 내세워두었으니 정말 작심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다. 그 대안적 후보가 차떼기의 대표주자라니,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 진보진영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피폐한 우리 삶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경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는가이다.

청년실업자 100만 시대, 일자리를 가졌다 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적인 현실. 머지않아 비정규직만 존재할지도 모를 불안하고 모순이 가득한 이 사회.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무슨 요술을 부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거기에다 남북관계를 최악시 하는 20세기적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미래 통일을 준비할 것이며, 무슨 수로 한국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다.

우리 민족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남북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같은 민족인 북한은 아예 믿으려 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목줄을 죄고 전쟁을 부추겨온 부시 정권에게는 열렬한 사랑을 맹세하는 열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없다. 우리의 선택기준을 경제문제로만 삼을 수는 없다. 진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공존하고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민족경제를 추구하는 길이라 믿는다. 평화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결코 진정한 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소신과 의지를 가진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우리는 북미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실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대선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주동적으로 대처할 정치세력을 창출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미동맹이나 연장하려는 세력의 생명을 연장하느냐를 가늠하는 마당이다.

평통사가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에 온 몸을 던지려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정세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민족의 통일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 일하려는 후보라면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추잡한 정쟁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방을 돌다가 어느 지방 신문을 보니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다. 러시아 속담에 ‘당신 친구가 누군지 말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말이 동양에도 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近朱者赤 近墨者黑)’이라는 말이다.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 색으로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소리이다. 의역을 하면 한마디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자신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중국 서진의 학자 부현(傅玄)이 편찬한 ‘태자소부잠(太子少傅箴)’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어지는 ‘성화즉향청형정즉영직(聲和則響淸形正則影直 · 소리가 고르면 음향이 맑게 울리고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도 곧아진다)’이라는 구절도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뜻의 말이다.

대선 시기,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 “대선 후보들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선언'을 성사시킨 주역들
- 가식 없는 순수함,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충실함으로 1만인선언을 성사시킨 평통사
회원들 이야기 -

부천평통사 최경순

신문 한 면 전체가 깨알보다 작은 글씨로 된 이름들로 가득 채워진 11월 5일자 한겨레신문을 보셨는지요.

과연 1만명 달성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갖고 시작한 1만인선언이 회원들의 노력으로 10,481명으로 마감되면서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평통사 회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전체 시민사회 진영이 이번 39차 SCM 의제인 작전통제권 환수 요구를 자신들의 요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를 보편화시킨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또한 처음 방한하는 게이즈 미 국방장관 일행에게 우리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를 보여주고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알려낸 것도 자부할 만한 일입니다.

이번에 1만인선언을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회원들의 힘으로 1만 명을 조직하고, 10만 명의 힘으로 유엔사를 해체하고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하며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지난 8월 일꾼대회에서의 결의가 결코 빈 말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한 분담으로 배정된 인원보다 대구가 200%, 전북이 150%를 달성했으며 서울, 인천, 부천은 초과 달성이거나 목표치에 근사하게 이루었습니다. 전체 1만명 이상되는 선언자 중 평통사 회원들이 7천명 이상을 조직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성적으로, 창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1만인선언을 전개한 회원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1만인선언을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한 회원은 가족모임에 대자보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준비한 대자보를 바닥에 깔 펴놓고 설명했더니 가족들이 쉽게 이해하고 모두 흔쾌히 서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허세욱 열사가 생전에 일하셨던 한독운수 노조에서는 조합원 2백여 분 가운데 무려 150여 분이 동참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조직된 단체들 보다는 발품을 팔아 받은 서명이 많았고, 오래된 회원들 보다 신입회원들이 더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사는 힘든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노력들을 하는 모습에 실무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자신들이 자주 가는 술집, PC방, 편의점, 미용실 등에서 서명을 받아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서울 평통사

<신재훈>

얼마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하니 민망합니다. 그래도 반드시 이번 서명받은 경험들을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부족한 점이 무언가, 채워야 할 것인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이후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을 받기위해 주변 선, 후배 직장 동료, 교회, 공원, 역도경기장, 서울역으로 다니면서 느낀 점은,

- 상대방이 작통권 환수 서명을 하면서 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나?고 물어서 유엔총회에서 해체결의를 해서 유엔사 존속 근거가 상실되었고 그러한 유엔사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공부 더 하고 오라고 할 때 참 막막했습니다.

- 그래도 미군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올 때 보은론? 은혜론? 하면서 머리에서 생각은 뱅뱅도는 데 명쾌한 답은 안 나왔습니다.

- 94년도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을 때 미군이 연합권한위임사항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사항을 다시 가져간 기만성과, 전시작통권을 반환한다면서 94년과 마찬가지로 전쟁개시권과 위기관리권을 미군이 가져가고, 각 군사기구를 층층이 두어 이전보다 더욱 종속된다고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뭔가 이해하기 쉽고 '아 그래 그랬구나' 하는 시원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진함이 남아있습니다.

- 질문이나 반박을 할 때 버벅대며 설명을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그 중 쉽게 설명하였던 것은 층층이 한미협조기구를 두어 사실상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려고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농사짓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니, 농사를 이해하는 분들인 쉽게 이해했습니다.

- 전쟁개시권, 위기관리권, 공군작전통제권 등을 설명할 때 이해하기 쉽고 동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펜트들, 남녀노소,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대상에 따라 더욱 다가 갈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일>

저는 주로 평통사 회원들과 이랜드 집회장 비정규직 집회장 공무원노조 출범식장 강동 송파민노당 주민행사장을 갔고, 개인적으로는 평택 대추리 지킴이하면서 알게 된 평화 활동가들, 사회에서 아는 사람들 중 평화운동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 학교 동창들, 과거에 나랑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일상 생활하는 사람들, 강화도 산마늘고등학교(대안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경우는, 흔히 사람들은 노인들은 보수적이고 젊은이들은 비교적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선언을 받으면서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선언에 반대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들 중에도 흔쾌히 선언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노인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동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려운 점이나, 선언을 방해 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장에서 선언을 받는데 "(기득권세력)이 작통권을 되찾더라도(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들) 우리들에게 곧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평화 활동가들 중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앞으로는 작통권이 미국에 있으면 우리 국민들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서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 작통권 되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해가지고는 대중들이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기 어렵죠. 그렇게 해서는 반론을 제기하면 답이 막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번 1만인선언을 받으면서 성과는,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지만 운동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일상에 묻혀서 사회에 관심을 안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 게 성과인거 같아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운다고 할까요.

인상적인 경우는, 공무원 노조 4기 출범식을 갔는데 150명 정도 온 거 같은데 통일 운동에 열정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서명을 했어요.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어릴 때 위인전을 보는데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지요. 닳고싶어하고 따라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행위를 당연히 여기게 길을 들이잖아요. 치밀하게 길들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요.

이런 대중들에게 내용을 쉽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천평통사

<김원식>

저는 50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서명받는 중 가장 아쉬웠던 일 한 가지를 들라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거의 서명을 다 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못 받았어요. 평소에 족보로 아저씨빨이라고 해서 무척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내는 친구가, 자기 형이 미군부대에서 일한다고 절대 안하겠다고 거절한 일이었어요. 그 친구에게만 못 받은 일이 참 아쉬웠어요.

재미있던 일 하나는, 제가 서명을 권하자, 얼핏 보고선 작통권 환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말로 알고 필쩍 뛰던 분이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일단 2천원 주고 나서 읽어 봐!' 하는 통에 같이 웃던 일이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도 많은 분이 해 주셨는데, 전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서명비의 2배가 넘는 돈을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고향 친구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는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나,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고 면박도 듣고 황당한 말도 들었지만 -내가 안하면 누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여권과 한나라당에 맘이 있는 사람은 반미투쟁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바꾸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조금 해 하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좋은 쪽으로 바뀐 것도 느꼈어요. 계속 열심히 합시다.

부천평통사

<최희준>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 종교단체 포교원들이 찾아왔어요. 그 날 날씨가 많이 쌀쌀해 두 여자 분이 너무 추워 보이셔서 들어오라 하고 차를 대접했어요. 그리고선 처음에는 금방 가겠지 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1만인서명이 생각나서 그 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 주었으니 내 얘기도 들어달라’하고 이번 서명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서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선언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숙희>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에게만 서명을 받다가 기회가 되어 민주노동당 여성 정치학교에 유한경 회원과 함께 참가하면서 서명을 받았었는데, 부친 평통사 목표치가 다 찬 줄 알고 한경씨에게 더 많은 서명지를 가져가시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 부친도 수가 다 안 찼다길래 조금 후회도 했죠.

여성정치학교에서 서명을 받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경우는 한 아주머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받았던 서명이었어요. 직접 참가비를 내시지 않고 딸에게 판단을 맡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윤미>

분회 모임 중, 우리가 자주 가는 술집의 주인 언니에게 서명을 받자는 제의가 있었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분회원 모두가 서로 먼저 받기위해 50미터 단거리 달리기를 하듯 앞다투어 술집으로 뛰어갔어요.

도착해서 분회장님이 선언 참가를 권유하자 단골집 주인 언니는 흔쾌히 해 주셨고, 다른 손님들께 더 받아주겠노라며 서명용지를 몇 장 더 받아두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손님 중 몇 분의 서명을 더 받아서 주셨다. 그것을 제가 챙겼지요.

또 하루는, 다른 손님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어려웠던 단골집 언니가 그 날 뒤풀이를 하던 또 다른 회원에게 눈짓을 마구 보내시고, 그 회원이 용기를 내서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해서 몇 분의 서명을 더 받아주셨어요.

<김정훈>

술 마시고 택시를 탔다가 문득 1만인 선언이 생각나서 알콜의 힘(?)을 빌려 평통사 활동에 대한 이야기와 선언에 대한 설명을 기사님께 했습니다.

기사님은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서명에는 동참하겠다 하시고 연락처는 안 주시더라고요.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참...

기사님께서서는 택시를 내릴 때, 딱 2천이 나온 택시요금을 안 받으시는 것으로 서명비를 대신하셨어요.

또 자주 가는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갔다가 서명을 받았는데, 30대 후반 정도 되는 미용사님께서서는 평소에 정치 정세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는지, 이미 작통권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흔쾌히 해 주셨어요. 너무 쉬웠죠.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께 전기요금 받으러 갔다가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총각,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 이런 걸 해~' 하면서도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친구들은 물론, 자주 가는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받았는데 서명비는 꼭 받아서 챙겼습니다. 서명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숙경이 누나가 신신당부 했거든요.

<장해영>

저는 재밌던 일도 없고 너무 밋밋한데... 그냥 친구들과 선후배들, 일 관계로 만나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스스로는 재밌던 일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켜 본 다른 회원이 전하는 말로는 '눈을 반짝이면서 무섭게 받으러 다니더라' 고 하더군요.

대전충남평통사

<박석진>

주로 일꾼들이 과기처 노동자 대동제, 민주노총 강의, 민주노동당 여성 정치학교 등을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전화통화를 통해 서명을 취합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아주머니들을 만났을 때는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이미 조직된 단위들을 중심으로 받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단위 내에서도 직접 몸으로 부딪치지 않고 한 다리 건너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야 소득이 생겼지요.

광주전남평통사

<정동석>

인상적이었고 모범적이었던 경우는, 전남 무안의 박석종 목사님 사모님께서 서명용지가 부족하니까 직접 A4지에 서명용지를 프린트해서 주변 분들과 신자들 70분 이상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주로 실무자가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는데, 자발적으로 적극 실천해 주신 모범적인 사례지요.

대구평통사 준비모임

<백창욱>

서울촌놈이 대구로 이주한지 일 년도 안된 터라 대구에는 사돈의 팔촌도 한명 없는 처지에서,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구에서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고, 활동가들 모임에 몇 번 출입하면서 그들로부터 받은 명함이 있었다.

사실 서명 받는 데는 약간의 노하우가 있다.

작년에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기독인연대’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성탄절을 맞이하여 “대추리 주민과 연대하는 기독인 1225인 선언”모집을 한 경험이 있었다. 그 때 서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추리 주민들 겨울나기를 돕고자 선언 참여비로 천 원 이상씩 모금도 했었다. 이번 평통사 1만인선언 모집과 방식이 아주 비슷했다.

이때의 경험과 이참에 대구평통사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내가 한 일은 하느님의 기운에 힘입어 약간이라도 끈이 닿는 사람에게 1만인선언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다. 사실 조금은 염치없는 일이기도 했다. 목사님들 쪽은 몰라도 활동가들과는 안면 한 두 번 접촉한 것이 전부여서 부탁할 때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평통사 이름이 뒤에 있고, 너무나 분명한 현안인지라 말하기도 떼떼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내주는 서명지나 선언비를 그때그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평통사 중앙으로 부지런히 전달했을 뿐이다.

중앙일꾼들이 1만인이 넘는 서명자를 정리하여 신문에 낸 일이나, 미 국방부장관 방한에 맞서서 투쟁하며 겪은 노고를 생각하면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일이다. 다만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퍼포먼스를 펴며 하느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처럼, 오늘 평통사의 투쟁에도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있다고 믿기에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쁘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역행하는 한미동맹 폐기!

기만적인 작전권 환수 논의, 39차 SCM 규탄 투쟁!

지난 11월 7일 39차 SCM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는 기만적인 작전권 환수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SCM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11월 5일에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1만인선언을 발표하고 한겨레신문을 통해 이를 알려냈습니다.

회의 전날인 11월 6일부터는 이번 SCM 참석 차 처음으로 방한하는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향해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는 한국민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림자시위를 벌였습니다.

39차 SCM 규탄 집회

△ 평통사와 진보연대 등에서 참가한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인간띠잇기를 벌였다.(11월3일)[사진제공-통일뉴스]

관련기사 : [11/3]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는 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집회

1만명을 돌파한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선언!

39차 SCM에 즈음하여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하여 주권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발표한 '1만인선언'에는 총 1만 570명이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 [11/5] 3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1만인 선언발표 기자회견 -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유엔사 해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촉구!

6일부터 7일까지, 그림자 시위

△ 6일 오후 2시, 오산 K-55 공군기지에 도착한 게이츠 장관을 향해 방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평통사와 평택지역 단체 회원들.

게이츠 장관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확장되는 평택기지 주변을 둘러보고 헬기편으로 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 6일 오후 4시, 숙소인 신라호텔로 들어오는 게이츠 장관을 향해 시위를 하는 평통사 회원들.

6일 오후 4시 경, 평통사 회원들은 숙소인 신라호텔로 들어오는 게이츠 장관을 향해 한국민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호텔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평통사 회원들은 호텔 로비에서 게이츠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했으나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경찰들은 폭력적으로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의 인권을 유린한 과도하고 폭력적인 경호행위는 친미사대에 찌든 한국 경찰의 위상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 날 경찰은 회원사업팀 유한경 국장의 얼굴을 신문지로 덮어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를 벽과 바닥사이로 압박하는 등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같은 야만적인 폭력으로 유한경 국장은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과 김판태 회원사업팀장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6일 오후 4시 10분 경, 신라호텔 로비에서 게이츠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끌려나오는 평통사 회원. 게이츠 장관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황급히 방으로 올라갔다.

한편, 평통사 회원들은 신라호텔 앞에서 오후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1인시위와 항의 촛불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 평통사 회원들은 6일 오후 10시까지 신라호텔 앞에서 촛불행사와 1인시위를 이어갔다.

평통사는 회의 당일인 7일 아침, 신라호텔 문 앞에서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현충원 앞 1인시위, 회의 장소인 국방부 앞 기자회견과 1인시위, 그리고 청와대 앞 1인시위 등으로 그림자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경찰은 현충원 앞 집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방해하는 등 또 다시 과도한 과잉경호를 자행했습니다.

△ 7일 오전, 숙소 앞 1인시위를 계속 전개하고 있는 평통사.

△ 7일 오전 8시 30분, 현충원을 방문하는 게이츠 장관을 향해 항의시위를 전개하려는 평통사 회원들이 경찰에 완전히 고착되어 있다.

△ 7일 오전 9시, SCM 회의가 시작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1인시위를 전개했다.

△ 7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한 게이츠를 향해 1인시위를 전개하는 평통사 회원. 경찰들은 이곳에서도 평통사의 1인시위에 대해 폭력적인 대응으로 나왔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기만적인 작전권 환수에 대해 그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는 마당에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방위비분담금 및 전시예비탄약 비용 등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 [SCM 반대투쟁 속보 - 6일상황 종합] 연행되었던 평통사 회원들 모두 풀려나 (11시 25분)

관련기사 : [11/6 SCM 속보_신라호텔 로비상황 종합] 항의서한 전달하려는 평통사회원 경찰의 살인적 진압으로 연행

관련기사 : [11/7 SCM 투쟁속보 5신] 오후 3시 청와대 앞 1인시위로 투쟁 마무리

[교양자료]

북방한계선(NLL)이란 무엇인가?1)

교육팀장 박석분

지난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의 평화흐름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 총리회담이 성과적으로 개최되었으며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국방장관회담에는 남측 국방장관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방북하게 됩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10.4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10.4선언 3항에 규정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상 우발적 충돌방지,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해서 서해 상 화약고와도 같은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ed Line)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남북 군사당국 사이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온 북방한계선(NLL)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북방한계선이란?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한국전쟁 당시 설정된 클라크라인(Clark Line)을 계승한 것으로, 서해 상 불가침경계선(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라크라인은 1952년 4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미군 총사령관이자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마크 W.클라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클라크라인은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1952년 9월 27일, 미국이 휴전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대북해상봉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크라인은 남북 사이의 해상전투를 위해 설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북으로 들어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차단하여 공산 측 전력약화를 기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정전협정을 수락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해상봉쇄선’입니다.

유엔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클라크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 2조 15항은 “조선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미군은 1953년 8월 27일 클라크라인 철폐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는데도 계속 북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정전체제를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정전협정 이행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깨질 것을 두려워한 미

국은 기존의 해상봉쇄선인 클라크라인을 “한국해군 행동의 북방한계선”으로 정하고 이를 유엔사 내부규칙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2조 15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북방한계선을 클라크라인을 계승한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법적인 선이며, 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북침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 정전협정에는 서해 상 해상분계선 규정이 없다.

1953년 휴전협상 당시 북측과 유엔군은 육지 군사분계선(MDL)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지만 서해 해상경계선은 의견의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전협정 2조 12항(b)에 규정된, ‘쌍방’이 합의하여 갖고 ‘함께’ 관리해온 선은 아래 지도에서 표시한 ‘A.가’와 ‘B.나’를 잇는 선입니다.

이 선은 서해 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서해 상 한강 하류 수역에 존재하는 수 없이 많은 작은 섬들에 대한 통제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은 남북의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전협정 1조 5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 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위의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3. 서해 5도 문제

우리 정부는 우도-연평도-소청도-대청도-백령도를 연결하는 해상의 선을 북측이 넘어올 수 없는 해상분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정전협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전협정 2조 13항(b)는 연해도서(해)에 관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로 규정하고 다만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북쪽에 있는 섬들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기로 하였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에 참여한 북과 중국, 미국은 이 섬들의 소속통제권을 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엄격한 별도의 단서를 첨부했습니다.

(주1) 상기계선(가-나선)의 목적은 다만 조선 서부연해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주2) 각 도서군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두는 각 도서군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주1)은 가-나선은 경기도-황해도 도 경계선으로 서해연안 섬들의 남북 통제권을 명시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선을 연장하거나 접속시켜서 어떤 선이나 구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2)는 섬 둘레의 지도상 점선은 그 섬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면적이나 수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목적의 선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서해 상 5도를 연결하여 이를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4.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새로 설정해야 할 서해 상 경계선

이처럼 북방한계선은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영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휴전협상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 해상경계선 문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해상군사분계선은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역이란 한강하류에서 황해에 접하는 남북한 사이의 자유통행 수역으로, 남북 쌍방이 공인하고 관리해온 구역을 말합니다.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을 포함한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남북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군사적 충돌과 분쟁을 방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남북 군사당국자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각 국의 영해를 12해리로 규정한 신국제해양법 등 국제법적 근거에 맞으면서도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북한이 NLL을 인정해야 여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국방장관 급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북의 입장을 묵살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평화 정세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10.4선언에서 약속한 군사적 신뢰구축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가 나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1) 이 교양자료는 아래 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07.9.12. 민변(통일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통사, 평화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배경의 종합적 연구', [통일시론] 통권 3호, 1999.7. 이 자료들은 평통사 홈페이지 평화군축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이곳을 클릭하시면, 본문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불법적인 북방한계선(NLL)을 폐기하라!"

관련자료 : 김장수 국방장관은 불법적인 'NLL 고수' 입장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자주 통일에 기여하는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라!

관련자료 : [NLL토론회자료1] 이장희,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자료 : [NLL토론회자료2] 장경욱, NLL문제 왜 2차 정상회담 의제가 되어야 하는가?

관련자료 : [NLL토론회자료3] 유영재, 서해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관련자료 : [리영희 교수,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국방예산 줄여 복지와 통일비용으로

평화군축팀장 오혜란

□ 국방예산 요구 규모와 쓰임새

국방부는 2008년도에 26조7,082억 원을 국방비로 쓰겠다고 한다. 올해보다 9%나 늘어난 액수이고, 내년 정부예산이 176조1,108억 원이니 국방비 규모는 전체 정부예산의 15.2%를 차지한다.

국방예감 쓰임새를 들여다보면, 방위력 개선비, 다시 말해 무기 연구개발비, 무기도입비용에 7조7,844억 원, 인건비 등 병력 운영비로 11조 6,813억 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전력유지비로 7조2,425억 원이 책정됐다. 국민 1인당 국방비로 약 60만 원씩 내야한다는 계산이다. 국방부는 애초부터 세금 낼 국민들 주머니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더구나 군비를 줄여 남는 예산을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통일 대비 남북 협력기금으로 돌려써야 한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국방비 줄이자는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산업연구원이나 정부 일각에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협력기금을 마련하려면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 남북협력기금과 통일대비 비용, 민중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 거꾸로 가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국방부가 국방예산 요구안을 짜는 근거는 국방개혁 2020과 '08~'12년 국방중기계획이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은 북한 체제 붕괴와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국익이 아닌 미국의 국익이 관철된다. 국방부가 들여오는 무기들도 북한 체제 붕괴라는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 무기들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익(국익)과는 정면으로 역행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정세의 진전과 남북 관계의 발전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화로 군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적, 민족적 재원을 소모적 군비경쟁을 낭비하고 정세와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는 도전적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가기는 정부 전체의 예산안을 조정하는 기획예산처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국방비 삭감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홍근수 상임대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논의가 시작되면 군축을 위해 국방예산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국방비를 늘려달라니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은 “출산을 저하로 병력이 자연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고성능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첨단 정보기술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늘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도 약속한 군 구조 개혁과 병력감축계획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2012년까지 육군 540여명, 해군 570여명, 공군 300여명 등 총 1,420명의 장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1,420명의 장교가 증원될 경우 이를 위한 인건비만 매년 2,000여억 원이 든다. 결국 기획예산처는 잘못된 국방부의 주장을 변호하다 앞장서서 국방예산을 늘려주는 함정에 빠져들고 만 꼴이다.

□ 중국과 일본에 대항하려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안보논리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 군사력 격차로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상실하자 이를 대신해서 들고 나온 것이 주변국 위협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 일이 한국을 안보위협으로 꼽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불특정 위협을 상정해서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실제 중국이나 일본이 자국이 처한 주객관적 조건을 도외시 한 채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할 수도 없다. 설령 군사력을 집중한다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지상 전력 2위이고, 해군 전력 7위, 공군 전력은 8위의 군사대국으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신들도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쉽게 한국과 한반도를 침공할 수 없다.

□ 국회 예산 심의와 예결위원장 면담

국회 국방위는 군 장교 증원 관련 예산(114억원) 일부만 삭감했을 뿐 정부의 국방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 견제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큰 차이는 없다. 예산심의회과정에서 소모적인 국방비를 대폭 줄여 생산 분야로 돌리고 서민복지비용, 통일대비 기금을 확보해야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원혜영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은 “안보 환경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무기들은 더 들여오지 않아야 하는데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는 수구냉전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평화가 좀 더 진전이 돼야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다”고 한다.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남북관계의 발전과 냉전적 대결구도가 청산되는 정세 발전을 감안하면 국방비는 반드시 줄여야 하고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제야 말로 평화와 안보의 관계에 대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북핵 문제 해결 다음에 평화체제 수립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수립은 같이 가야하고 국방예산 삭감으로 군축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 국방비 삭감의 의의 - 밥이 곧 평화이고, 평화가 곧 안보

대북 선제공격 무기 도입예산 삭감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 실현을 촉진하고,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해체에 기여하며, 병력유지비 삭감은 군 구조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 통일 대비 남북 군사력 통합을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국방예산 삭감은 사회양극화 해소 등 민중복지 기금을 확보할 수 있

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기도 하다.

만일 작전권 환수와 함께 대북 공세적 전략과 교리, 작계를 폐기하고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으로 전환한다면 대북 공세적 지휘통제체계(C4I), 군사위성, 무인정찰기 등 첨단 고성능 감시정찰 무기와 F-15K, 이지스 구축함, K-9자주포 등 북한 중심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무기 도입도 필요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방예산 삭감은 그동안 국민들이 줄곧 반대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온 부분부터 깎아야 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876억원, 패트리엇미사일(SAM-X사업) 2,156억원, 한국형 헬기사업(KHP) 1,865억원, F-15K도입 3,536억원이 그것이다.

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사업 4,480억원,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59억원, 이른바 ‘한국형MD’ 관련 조기경보레이더 58억원,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 착수금 10억원, KDX-III(광개토왕함) 3,664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 324억원, 대구경다련장(MLRS)전투예비탄 1,320억원, K-9자주포 3,628억원, GPS유도폭탄(JDAM) 166억원 등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와 작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대북 공세적, 첨단 고성능 무기 도입비용을 삭감해야한다.

병력운영비도 대폭 삭감해 군구조 개혁과 병력 감축을 강제해야한다. 방위비분담금 7,415억원,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라크, 레바논) 643억 원, WRSA관련 영동 비군사화시설 47억 원, 한미연합훈련비용 47억 원, 무건리훈련장 960억 원, 용산 및 2사단미군기지이전 3,628억 원 등 한미동맹 관련 분야 예산은 전면적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2008년도에 미군에게 퍼주는 돈만해도 최소한 1조2천700억 원에 달한다.

△ 산업연구원 정부용역보고서(남북중협재원조달보고서)

"남북 경협 비용 마련위해 국방비 깎아야"

△ 주한미군에 퍼주는 비용

방위비, 환경오염치유비용, 기지이전비용등 1년 최소 2조원

공격용 무기 도입 등 전역증강비 272조(국방개혁2020)원.

이 비용을 줄이면, 남북경협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공동복지 실현의 큰 길 열 수 있어.

청년실업 해소,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등 삶의 질 향상.

주택문제 해소로 도시 서민층 걱정 끝!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무건리 주민들의 국방비 삭감 투쟁

제주해군기지 양홍찬 위원장: 4.3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되면 동북아 군비심화돼

강정마을은 언제나 맑은 물로 유명하고 제주도민의 식수로 사용된다. 천연기념물도 많다. 제주도민이 다 그렇듯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왔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는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지스 구축함, 대형상륙함, 수송함으로 구성되는 대양해군

기동전단이 들어온다. 제주도가 다른 나라 공격기지로 사용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킨다. 주민동의 없이는 건설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버리고 기습적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국방부의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주민 자체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680표)가 반대했다.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예산(342억원)을 삭감시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겠다.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11월 20일, 양홍찬 위원장과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국회를 떠나지 못했다. 통합신당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지만 한나라당이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통합신당의 방침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작 그날 김태환 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로비까지 했다니 강정마을 주민들의 울분과 배신감은 쌓여만 가고 있다.

무건리 주병준 위원장, 과주~개성까지 열차가 다니는 길목에 대규모 군사훈련장은 절대 안 돼

평화협정도 체결된다고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주에서 개성까지 화물열차를 운행하는 등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데 군사훈련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세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예결위원장을 면담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2002년 여중생 사고 후 주민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산다. 인도를 확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산이 8억인데 돈이 없어 못해준다면서 훈련장 확장비용에는 2008년도만 960억원을 책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1996년도에 확장되어,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바로 옆 오현리로 이동해 정착을 했는데, 이제 또 10년도 안돼서 또 쫓겨나야 할 상황에 있다. 지금도 550만 평이다. 1,100만평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내 쫓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960억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주민들이 열심히 싸울 터이니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싸워 달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이 무건리 주민들이 반대와 저항이 심하니 훈련장 확장비용을 삭감하자고 제안하자 국방부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주민은 소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찬성하는 측은 대다수가 부채지주이고 현재 200여 가구 주민 대다수는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훈련장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을 대비한 투쟁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련자료 : [국회예결위원장 면담자료] 국방예산의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군축 단체가 국회 예결위원들께 드리는 제안

관련자료 : [제74차 평화군축집회] 국방예산의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화군축 단체가 국회 예결위원들께 드리는 제안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 막아내고
우리 땅을 지킵시다.

미군문제팀 박종양

△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오현지킴이 평화학교

△ 무건리 훈련장으로 향하는 미군전차

때이른 눈이 한반도의 하늘을 덮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파주의 한적한 시골동네 무건리 훈련장 인근 마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평화스러운 오현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대규모 훈련장으로 확장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일을 마치고 지금은 폐교가 된 옛날의 직천초등학교 모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실현,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오현지킴이 평화학교’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낮에는 어린 꿈나무들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소중한 체험을 하는 곳, 경기북부에서는 이름난 ‘도자기 나라’가 평화학교의 장소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13일, 주한미군에 의해 압사당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무건리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무건리 훈련장의 역사와 확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

1980년대 초, 350만평의 훈련장 건설을 위해 무건리 주민들은 강제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던 학교도,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도, 그곳에서 주민과 함께 생활해온 수많은 들짐승들도, 500년간 한곳을 자랑스럽게 자라 문화제로 지정된 물푸레나무도 훈련장에 파괴되고 묻히고 포위되었습니다. ‘무건리 연대 전술 훈련장’은 그렇게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탄생했습니다.

그 훈련장이 지금은 550만평으로 넓어졌습니다. 훈련장 확장으로 주민들의 상처 또한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고향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훈련장 인근에 다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젓소도 키우고, 농사도 지으면서 아픈 상처를 달래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을 1,100만평(가로 18Km, 폭 5Km) 규모의 종합훈련장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6년부터 각종 인허가 규제는 물론 내 집의 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망의 마을로 고립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을 서서히 폐쇄화시켜 자포자기 상태로 만들고 주민들의 집과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훈련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 이른바 100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모든 문제를 민족이익에 맞게 해결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고 외세의 간섭 없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 최대의 이익입니다. 오는 12월 11일에는 문산에서 개성까지 시험적으로 열차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무건리에서 실전에 가까운 종합훈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군대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주의 헌법에 기초해서 방어위주의 작전을 시행한다면 더욱이 이러한 대규모 훈련장은 필요 없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문제는 또 하나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은 지난 97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상의 한미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 합의(과제번호 3089)에 따라 연간 13주(91일)를 주한미군에게 제공, 한국과 공동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따라 한미 공동사용을 위해 미군에게 새로 제공되는 한국군 훈련장 37곳 중 무건리 훈련장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훈련장의 '공동사용'이라는 명분은 미군이 원하면 훈련장 내의 시설과 구역을 언제나 내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훈련장과 미국이 보유하는 모든 훈련시설과 구역의 주변에 대해서까지 한국군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훈련장 공동사용의 의도는 단독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에서 벗어나 각종 비용과 민원, 환경오염 치유책임 등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똥은 미군이 싸고 치우는 것은 한국군이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가 합의되어 주한미군의 구조와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에게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에게 성능과 작전을 마음껏 테스트할 곳이 필요하고 그곳이 바로 무건리 훈련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옥토가 또다시 미군의 패권강화를 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고향 마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움직임에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 위원장 주병준)가 주관하는 오현지킴이 평화학교에 경기북부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현장사진연구소, 희망찬과주연대가 공동 주최로 참여했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의 첫 번째 강의, 두 번째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투쟁한 주민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대추리 전쟁' 상영에 이어 11월 22일 저녁 세 번째 강의는 대추리 신중원 이장께서 했습니다.

신중원 이장은 황새울 들녘을 쫓겨 나온 주민들의 생활을 전하며 고슴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친척보다 가까운 가족 같던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중원 이장은 지난 날 땅을 빼앗기 위해 국방부, 경찰, 토지공사 직원들이 보여줬던 추악한 행태에 대해서 낯낫이 고발했습니다. 주민의 인척이나 지역 출신의 공무원, 경찰을 전면 배치해서 주민들을 분열하고 빨리 팔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를 팔고 나간 주민들을 또다시 이용해서 주민들의 분열을 부추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할 일을 잃은 주민들이 화분에 고추도 가지도 심고 가꾸며 향수

병에 걸려 지낸다는 얘기를 하면서는 눈물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신중원 이장은 국방부가 주민들을 통해 ~했다더라, ~한다더라는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믿고 서로 의지해야만 어떠한 협박과 회유도 이겨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중원 이장은 꼭 고향을 지켜 계속 행복하게 살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현리 주민들은 벌써 국방부가 빨리 땅을 팔지 않으면 공탁을 걸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2년 전에 판 토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판 시세만큼 보장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빨리 팔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중원 이장의 말처럼 주민들에게 회유를 시작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산으로 1,39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국회에는 960억 원이 상정되었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벌써부터 도자기 나라의 계약을 올해로 중단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국방부가 기어이 우리의 고향을 빼앗아 전쟁훈련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또다시 평화를 지키려는 전국의 애국 시민들이 무건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이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주민대책위 사무실 앞에는 ‘대한민국 대포도시 파주’라는 펼침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평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평통사가 앞장서서 주민들과 함께 무건리를 지켜내야겠습니다.

△ 올 3월 RSOI중단과 무건리 확장 중단을 촉구하는 주민들

△ 훈련중인 미군들

관련기사 : 한반도평화실현, 무건리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오현지킴이 평화학교 / 2007.11.08

관련기사 : 한반도 평화실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한 오현 지킴이 학교 2007.11.15 / 무건리 도자기 나라

중앙소식

지난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김한용)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항소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정구 교수는 지난 2년 검찰에 의해 죄목으로 기소되어 동안 지리한 법정투쟁을 전개해왔다.

강정구 교수 대책위는 21일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여 조출한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관련기사 : [11/13 강정구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관련기사 : 국가보안법 철폐, 학문의 자유수호, 강정구교수 무죄판결을 위한 격려와 다짐의 밤

△ 지난 4월23일 3차 공판에서 이철기교수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RSOI-FE(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연습)은 헌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국제법 등에 따라 위법이라는 증언을 하였다.

검찰은 지난 2006년 3월 30일,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한미연합증원 및 독수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구형에 대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형량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한미가 '통상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주장이 평양을 고립 압박하는 공격연습이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이 얼마나 침략적인가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것을 근거로 진행되는 연합연습이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선고는 오는 12월 21일 오전11시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관련기사 : 검찰, 만리포투쟁 1심재판서 징역 1~3년 구형

지난 11월 20일, 국방부는 국방부 출입기자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 등에게

전쟁예비탄약(WRSA)에 대한 공개성능시험을 실시했다. 국방부가 한미 당국 사이에 와사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이 같은 시험을 실시한 것은 와사탄약의 인수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대국민기만극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와사탄 인수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 기만적인 성능 시험 통해 미군 쓰레기탄약(WRSA) 매입 정당화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13일, 대추리 평화공원 인근에서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를 규탄하기 위해 본정리 농협 앞과 도두리 황새울 들녘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 날 집회에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하여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하여 기어이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관련기사 :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기공식 규탄집회

11월 1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에 평통사 회원 60여 명이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온 국민이 나서자'는 구호를 들고 참가했다.

관련기사 :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10월 24-25일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한미간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었다. 이 협상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비로 전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평통사는 이에 외통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방위비분담 제도변경 2차 협의 규탄 기자회견

10월 19일, 한미동맹을 침략적인 동맹으로 바꾸기 위한 SPI 회의가 열 다섯 번째 열렸다. 평통사는 2007년도 SCM 의제를 협의하는 SPI를 규탄하고 회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하루 농성을 벌였다.

관련기사 : 제 15차 한-미 한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및 농성

평통사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을 기도하는 정부에 맞선 시민사회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였다.

관련기사 : "자이툰,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 공동 반전 행동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전쟁연습비용 중 한국 분담금을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이 요구가 거부되자 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사용할 모의훈련 용 워크스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횡포를 자행했다.

이에 굴복한 국방부는 연합전쟁연습 분담금을 올해 32억 원보다 50%나 늘어난 47억 원으로 책정한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평통사는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규탄했다.

회원에서 상근활동가로

서울평통사 박희정

서울 평통사에 상근을 시작하고, 출근한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사무실 갈 준비를 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녹색가게 일을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가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집안 살림만 하며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지역의 여성 단체에서 문화학교를 같이 준비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드리는 것이 별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평통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때쯤 ‘평통사 일꾼들을 위한 점심식사를 준비 해주면 어떨겠냐?’는 제안이 왔고, 고민 끝에 평통사 상근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전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일꾼들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서둘러 앞치마를 입고 주방에 들어가 식사준비를 합니다. 점심식사를 기다릴, 세상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일꾼들을 떠올리며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식사준비를 마치고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 일꾼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요리를 잘하지’하는 잘난 척도 하며,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점심식사 후 최문희 교육부장님께 포토샵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히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별별 모양과 갖가지 색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집회 사진도 편집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팝업창도 만들어 올려 봅니다. 열심히 배워 평통사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초까지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운동’을 진행할 때,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을 비롯하여, 친목 모임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1만인 선언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꾼들과 1만인 선언을 받기 위해 거리에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0월말 쯤 대학로에서 열린 ‘친환경 생명 대축제’에 나갔다가 우연히 오랜만에 아는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에게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참하길 부탁했을 때 선뜻 나서주는 그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무료 영화 티켓이 생겨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영화를 보고, 1만인선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당당히 이야기하며,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서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을 모아서 1만인 선언을 해냈습니다. 한사람의 힘은 작지만, 그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내니 결국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앞으로 일꾼들을 위한 맛있는 점심과,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믿고, 열심히 응원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금강산 여행 참가기

김미영(부천평통사 영화분회)1)

1박3일의 금강산 여행...

이번 금강산 여행은 엄청난 설레임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드디어 북측 땅을 밟아보는구나' 하는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밤새 버스가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고성. 그곳에서는 사뭇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왠지모를 긴장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라는 느낌 때문이었을까?

현대아산 직원으로부터 북측에 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 등 주의 사항을 듣고 남과 북 출입국 사무소를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 '얼른 통일이 돼야지, 너무 번잡하다.'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우리러 나왔다.

북측 출입국 사무소를 나와서 숙소 쪽을 향했을 때 버스 밖 풍경 중 군데군데 서있던 군인들은 마치 서있는 모습과 복장들이 장난감 병정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였다.

숙소에 짐들을 놓고 우리는 첫 번째 장소인 구룡연코스, 구룡폭포로 향했다.

비록 체력이 딸려 정상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경치를 즐기며 올라가는데 남측의 오염된 공기와는 너무 달라 우와 소리가 절로 나왔다.

산을 올라가기보다는 사진을 정신없이 찍었는데 북측의 소나무는 남측의 소나무와 너무 달라 의아해했는데 바로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기후의 차이, 남측의 소나무는 잔가지가 많고 이리구불 저리구불 거렸는데 북측의 소나무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쪽쪽 뻗어있었다. 잔가지들도 없이 꼭 그곳의 성격을 보는듯했다. 또한 그곳의 계곡물들도 여건만 된다면 퍼가고픈 물들이었다. 물들이 초록색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게르마늄이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깊은 물에서나 볼 수 있는 초록빛을 여기서는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다 볼 수 있었다. 구룡폭포 중간 우리는 북측 사람들과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가 달고 간 뺏지를 보고 먼저 다가선 그들. 평통사를 알고 있었다.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우리의 교육방식과 너무나 다른 점을 통감했다. 그들의 입에서 정치와 통일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을 때는 한편으로는 신기했다. '저들도 다 알고 있구나. 다 듣고 있었구나'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는 교예단 관람을 했는데 교예단 성원들의 정확성에 박수를 보냈다. 손짓하나에 연습과 또 연습, 반복을 통해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교예단의 공연이 끝나고 모두들 기립박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옥류관으로 향했다. 옥류관에서는 북측음식을 하는데 북측 된장찌개와 냉면을 먹었다. 조미료에 익숙한 입맛은 입에 안 맞을지 몰라도 난 맛있게 먹었다. 식사 후 접대원들의 공연은 피꼬리 같은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입가에 웃음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접대원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절로 입에 베일정도였다.

마지막 날, 만물상을 올라가야 하지만 비가 많이 오구 체력도 떨어져 중간에 사람들과 북측의 막걸리와 두부를 먹으며 답소를 나누고 내려와 집에 가져다줄 선물을 고르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나에게 이 북측 여행이 마지막이 아닌 이제 시작이길,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

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길 간절히 빌며 돌아왔다.

물의 색이 옥색이네요! 참 맑고 깨끗했어요.
구룡폭포 올라가는 길..

아마도 제일 오른쪽 사진이 삼일포 쫄 아닐까 싶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썼죠? 계단이랍니다.
금강문이라고 해서 이문을 지나면 그 경치가 그렇게 빼어나다는데..
이글을 정리하는 제가 요기까지밖에 못가서리...

운정각에 있는 커피숍 "금강초롱"에서 쉬고 있는 회원들..

만물상 오르는 길에 한 컷! 막걸리와 두부가 일품이었습니다.

북측 접대원동무들의 공연도 보고, 건배사도 하고..
오른쪽 사진은 산행 대장님..

우리 회원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왼쪽은 김현숙 사무장님 언니네 가족들.

옥류관에서 저녁먹고 밖어나와 한 컷!

교예공연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아쉬워라..
정말 놀라운 수준의 공연이었습니다.

미영이 손가락 부러지겠다. ^^

왜 다 무릎을 꿇고 있는거지? 제일 오른쪽은 숙희언니와 함께 한 동료.

사진이 너무 조금이라 아쉽습니다.
생각 같아서 수백장 올리고 싶었지만, 고르고 골라서 올려보았습니다.
다음에 갈 기회가 또 있다면 그때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꼭 함께 합시다!!

광주전남 평통사 - 11월 3일 SCM 반대집회 뒤풀이 자리에서.

11월 3일 SCM반대 집회에는 오랜만에 배 대표님을 비롯 9명의 광주 전남 평통사 회원들이 참석하여 서울 집회 참가 인원으로는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회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평통사에 대한 애정과 활동의 열의를 밝혀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광주전남 회원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종주 (나주 시민회 후원회장님)

이 땅에 외국 군대가 주둔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기성 세대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후배들 보기 민망하다. 그런 업보가 있으니 내 나이가 많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다. 앞으로 서울 평통사보다 나주 지회를 크게 만들테니 긴장하시라.

이재창 (나주대학 교수님)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집을 나서자, 부인이 ‘어디 가냐’ 고 하길래 ‘서울 가네’ 했더니 ‘서울까지 뭐 하러 가냐’ 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땅 민초들의 애환이네’ 하고 답했다. 앞으로도 평통사 활동을 하려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원용기 (나주 신문사 기자)

평통사 활동 모습에 깊은 감명이 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고려하고 있고, 함께 오게 되었다.

안희만 (나주사랑 시민회)

나의 지금 목표는 광주 전남 평통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주 지회를 꾸리는 것이다. 평택 트랙터 전국 순례 때 김종일 사무처장님을 만나면서 평통사를 알게 되었다. 80년대, 나이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제대로’ 하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평통사를 알게 되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만큼 앞으로 평통사를 꾸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날 뒤풀이 자리에는 경기남부 평통사 (내년 2~3월 정식으로 발족 예정) 준비하시는 회원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분들의 말씀도 전합니다.

현호현// 평택 투쟁에 열심인 평통사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하겠다고 결심했다. 장에서 열심히 반미투쟁을 하겠다.

민영완// 양평에서 평택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직장을 바꿔 평택과 더 가까운 오산으로 옮겨 가면서 평택 투쟁을 해 왔다. 그런 중에 평통사의 반미투쟁과 평택 투쟁 모습을 보면서, 평통사를 통해 우리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평통사와 함께 하겠다.

[안동 평통사, 제5기 시민학교를 돌아보며]

안동평통사 한철희 교육국장

분단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며 지역의 대안적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단체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이번 2007년 가을을 맞아 연례적으로 행사해오던 안동 시민학교의 제5회째 개교를 맞았다.

기간은 11월 2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19:00~21:30)에 개강하여 11월 30일까지 연 5주간 진행됐다. 장소는 안동가톨릭상지대학교 쉼터관과 세미나실로 지역의 매우 뜻 깊은 행사인 만큼 대학 측에서 장소 및 시설을 전격 후원해 주었다.

이번 제5기 안동시민학교의 제목은 “민족주의 이후의 민족”으로 큰 틀을 정했다.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점차 가속되어지는 전 지구적 미 제국주의와 또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경제적 예측을 탈피하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이뤄내는 진정한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일종의 모색에서 출발했다. 즉, 글로벌화 된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과 함께 분단된 이 땅에서 어렵게 짝이 트기 시작한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 화해 협력이 내포하는 진정한 민족주의와 또 우리에게 과연 “민족”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성찰해 보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 보기 위함이었다. 이번 제5기 안동시민학교를 실제적으로 기획하고 입안한 피재현 정책실장의 “민족주의 이후의 민족”으로 정한 화두의 웅변이다. 이러한 관계로 이번 제5기 안동시민학교의 초빙 강사진은 이 “민족”이라는 큰 주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면면만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먼저 11월 2일 진행된 첫 강의는 평화통일연구소장이자 우리 평통사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 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을 모셨다. 강의 주제는 <2차 남북정상회담과 올바른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우리 민족에게 부여하는 중차대한 의미와 또 앞으로 외세의 간섭을 어떻게 배제하고 어떤 화해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경청했다.

50여명의 지역시민과 지역 활동가들은 내내 숙연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며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바투 세웠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남북이 함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대동의 길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임을 강조하며 이 날 열띤 강연을 마쳤다.

두 번째 강연은 11월 9일에 있었다. 초빙강사로는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정환 님을 어렵게 모셨다. 한 때 조정환 님은 90년대 초반 이 땅의 사회주의 논쟁을 주도하여 많은 문제작(?)들은 내 놓은 전력이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날의 강연에 큰 기대를 나타냈지만 정작 더 큰 관심은 이 분의 이 날 강의 주제에 있었다. 다름 아닌 우리 안동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 권정생 선생의 문학으로 보는 민족 문제였던 것이다. 즉 강의 주제가 <권정생의 자연주의적 생태문학과 “바보-하느님”>이었으니 조정환이라는 시대적 인물이 권정생과 어떻게 조우하는가 하는 궁금증일 것이다. 이런 기대와 관심, 그리고 무게 때문이었을까? 이 날의 강의는 여느 날과 달리 매우 긴장되고 진중하게 진행되었다. 함부로 재며 넘나들 수 없는 권정생이라는 인물을 통해 민족의 문제를 재단하고 평하며 또 그의 깊고 그윽한 심원의 세계를 짚어낸다는 결코 쉽지 않은 부담 때문인지 이 날의 강연은 표면적인 민족 문제나 이념보다는 현대문명의 질곡과 전쟁의 아픔 등에 대한 작가가 천착하는 삶에 할애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는 평이다.

한편 조정환은 전쟁을 포함한 권력이 자행하는 모든 아픔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아나키즘적 요소가 권정생 문학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들어 현대문명의 고질적 병폐와 폐해는 권정생이 생전에 말하는 바보 하느님으로의 회귀, 즉 자연주의적 생태문학으로 귀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결론지으며 이 날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제3강은 지난 11월 16일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3강만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지역의 명사로부터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우리 안동평통사 회원이기도 하며 또 지역의 여러 공부모임을 주도하고 계시는 교사 박무식 님을 모시고 <북측의 민족주의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띤 강연을 들었다. 박무식 님은 지난해 북측의 평양과 백두산을 다녀오신 소감으로부터 시작하여 분단된 조국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오롯이 선 남북의 민족주의와 주체적 민족이 만날 때 가능하다는 논지를 폈다. 한편 과거, 서구 여러 제국주의들이 그들만의 민족주의를 내걸고 침략적 민족주의가 발호했던 경험이 있음을 예로 들어 우리가 현재 말하는 민족주의의 위험성이 또한 없질 않는가 하는 여러 지적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박무식 님은 한결같이 현재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민족주의는 과거의 서구 배타적 민족주의와 국수적 민족주의가 아닌 평화와 통일의 초석으로서 화합이 가능한 진정한 민족주의라며 그 차이를 설명했다.

<민족주의 이후의 민족>을 주제로 연 이번 안동시민학교의 제 4강은 최근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민 문제, 즉 다민족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를 다뤘다. 강사로는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인 김순애 님을 모셨다. 김순애 님은 그 동안 국내의 여러 이주여성인권운동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폭 넓게 형성된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갈등 등을 각 국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찾아야한다고 운을 댔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화합과 포용의 문화가 아쉽다며 나부터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의 시작을 주문했다.

제5기 안동시민학교는 다음 11월 30일 금요일 저녁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민족주의 이후의 민족>이라는 명제 하에 우리 안동지역 통일운동 성과와 과제라는 내용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려질 청사진까지 나름의 발제를 통해 각 분야별 심도 있는 대토론회가 예고되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안동평통사의 우리 지역 속 문화운동, 그리고 통일운동을 비롯한 여러 운동들의 현주소를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물론 이런 되짚어 봄과 함께 돌아보기를 통해 지역 통일운동의 선도 역할은 물론 보다 나은 통일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안동 시민학교를 정례적으로 연지 올 해로 어느덧 5년을 맞았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진 않았겠지만 돌아보면 지역의 평화와 통일운동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고민이 깊었음을 부인할 순 없다. 마지막으로 작은 바람이지만 안동 시민학교와 같은 지역의 이러한 진지한 고민들이 하루빨리 전국에 발전적으로 도입되어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길 진정으로 빈다.

이번 5기 안동시민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김창환 회장님과 강석주 사무국장, 그리고 피재현 정책실장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안동시민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지역 일꾼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평통사 임원 워크숍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쟁취를 위한

2008년도 투쟁을 논의하고 의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중앙과 지역의 대표와 운영위원은 물론 참가가 가능한 열성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2월 10일(월) 오후 5시

장소 : 충남 유성 유스호스텔

참가비 : 1인당 2만원

서울평통사

제 2회 평화영화제 'U.S. ARMY다=U.S. 癌암이다'를 열었습니다.

11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동안 홍익대학교 제 2신관 101호와 와우관에 나눠서 제 2회 평화영화제 "U.S. ARMY다=U.S. 癌암이다"를 열었습니다.

첫 날인 11월 2일(금), 저녁 7시 20분에 홍대 제 2신관 101호에서 김종일 사무처장님과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박슬기 회장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을 다룬 '노맨스랜드'를 상영하였습니다. 약 40여명의 관객이 진지하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3일(토)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홍대 와우관에서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미선이 효순이의 죽음과 이라크 전쟁을 다룬 '이라크에서 총을 버려라'를 첫 상영작으로, '대추리전쟁', 아이들과 함께 보는 평화만화영화 '새'와 '폼포코너구리대작전', 그리고 르완다 내전을 다룬 '호텔르완다'를 차례로 상영하였습니다. 이 날 오후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영화제에 함께 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성분회 노동들의 회원들과 아이들 30여명, 산마을고등학교 학생 6명을 비롯하여 약 5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4일(일)은 오후 1시부터 '비틀어보기_똥이장군'을 첫 상영작으로, '볼링 포 콜럼바인', '관타나모로 가는 길'을 상영하였습니다. 약 50여명의 관객이 함께 해주셨고 6시 30분쯤 폐막식을 열었습니다. 폐막식은 서울 평통사 회원이자 영화배우이신 권병길 선생님께서 "평화영화제가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동안 영화 5편이상 본 관객에서[전환기 한미관계 새판짜기2]와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기로 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상은 박희정, 이호민 회원, 백승이, 신혜슬 어린이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한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서울 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영화제를 무사히 잘 치러냈습니다.

관련기사 : 제 2회 평화영화제 "U.S. ARMY다=U.S. 癌암이다"

영화분회

10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사무실에서 나영훈, 이경아, 김슬기, 윤영일, 박상훈 회원과 평통사 회원사업팀 유한경 국장님이 모여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를 보았습니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는 일본의 미야자키 감독이 1984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2시간 가까이 상영되는 동안 시종일관 진지하게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여성분회 노동들

여성분회 11월 모임은 14일(수)에 지난 8월 이사한 박정자 회원의 집에서 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일하는 장남희 회원이 일이 많아 지난 모임부터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10월~11월은 1만인 선언과 평화영화제, SCM 투쟁 등으로 짝 찬 일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성분회원들도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지인들에게까지 작통권의 전면적인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선언을 받느라 많은 애를 썼습니다. 서명을 받으면서 작통권이 전면 환수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상을 알고 나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화영화제에는 둘째 날 아이들과 함께 대부분 참여했었는데, 좋은 영화 선정과 좋은 장소에 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에 아쉬웠습니다.

회원들이 홈페이지의 SCM 투쟁 동영상을 보고 온 몸을 던져 투쟁했던 중앙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투쟁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겠다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열리는 평화군축집회도 올해 마지막이어서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금) 여성분회 송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분회

서울 평통사는 9월 3차례, 10월 1차례 평화협정 관련한 집중학습을 하였습니다. 노동분회 성원들은 집중학습에 결합하는 것으로 모임을 대체하였습니다. 해서 지난 8월 중순 모임이후 2달 만에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작전통제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말로는 병렬형 구조를 가져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에게 환수되는 양 말하지만 실상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미군 주도로 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모임 전에 분회장과 서울사무국은 분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과로 분회원들을 직접 찾아가 분회를 세우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후 평화협정 정세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각자의 결의를 세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 등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의 여의치 않아 김중한 회원을 만나는 것에 그쳤지만, 이후 노동분회 성원 전체와 만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10/26] 노동분회 11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알립니다.

12월 4일(화) 저녁 7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21차 테마사랑방을 엽니다.

12월 14일(금), 저녁 7시부터 사무실에서 서울 평통사 송년회를 엽니다. 2007년 한해를 돌아보며 조출하게 열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12/4] 제21차 테마사랑방

부천평통사

- 작전통제권 환수 1만인 선언을 조직하며-

△ 평화나무를 만들어 회원들이 선언자를 받아올 때마다 나뭇잎을 붙였답니다!!

- 칠성 : 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지난번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어 권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을 만나 받기도 했구요. 그리고 어머니, 형제, 조카들까지도 모두 받았답니다.

- 정훈 : 집에 가는 길에 항상 들리는 편의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분에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뉴스도 안보고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주고 읽어보라고 권했지요.

그리고 몇 일후 집에 가는 길에 다시 들러 얘기를 꺼냈어요. 책자를 읽어 보았는지 동참을 하더라구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바뀌는게 있냐, 없냐’ 하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도 있더라구요.

- 해영 : “아, 조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조직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막역한 부담과 어려움으로만 느끼던 것이 ‘그래,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다가가니 의외로 쉽게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구요. 설명하는 과정에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같이 찾아보기도 했구요.

- 영희 : 학교에 네트워킹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여 선생님들에게 모두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적인 일이 생기고 있다고. 평화협정 얘기, 꺾테기만 돌려받게 된 작전통제권 얘기, 읽어보고 참여를 해달라고, 그리고 옆 사람과도 나누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 얘기하다가 잘 안되면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얘기... 등등을 적어서요.

그리고 리플렛에 선생님들 이름을 한명 한명 적어 책상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렇게 받았어요.

- 선언을 얘기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쉬운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 회사를 같이 다니던 형은 선언을 이야기 하니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직장 알아보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이 일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힘을내서 했어요.

- 직장 동료들이 흔쾌히 해주었어요. 설명도 듣지 않고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용을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설명을 열심히 했답니다.

-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정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를 해서 조직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후기

- 선언 조직했던 과정을 얘기하며 더함분회에서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평통사 활동에 대한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사람을 조직하는데는 정말 큰 애정과 간절함, 정성이 제일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느낀점을 나누었습니다.
- 이후에 '10만 조직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을까?' 하는 누군가의 질문에 시간적 여유도 더 많이 갖고, 캠페인도 나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눔도 하였다고 하네요.
- 조직을 하면서 평통사 회원이라면 한 개인으로써의 회원이 아니라 평통사의 성원으로써 밖에서도,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하는 것의 필요성도 나누었습니다.

이후 소식

- 12월 8(금)일 제2회 평화카페, 장소 추후 공지

인천평통사

[활동소식]

제4회 평화사랑방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교양

△ 10월17일(수) 오후7시, 한국토지공사 교육실에서 오혜란 대표님을 모시고 제4회 평화사랑방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대표는 현재 한미군사지휘체계와 작전권 환수후 한미군사지휘체계를 비교 설명하면서 국방부의 작전권 환수계획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미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두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만들어 MC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는 껌테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협조기구를 두어 내용적으로 미군이 작전통제를 하게 된다는 사실과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은 작전권 환수계획이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난 참가자들은 모두가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더니 도대체 무엇을 환수한다는 것이냐며 이런 국방부의 환수이행계획에 대해 규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 미군주도의 통합사령부라는 사실과 현재, 아무기능도 없는 유령조직에 불과한 유엔사를 미국이 다시 부활시키려하는 꿩꿍이는 유엔사령관을 통해 위기조치권을 행사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침전쟁 결정권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는 것은 현재,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평화정세에 맞는 방어위주의 전략과 작전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을 아무조건없이 제대로 환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길입니다.

이번 평화사랑방에는 신현범 신입회원과 김정대 신부님, 615공준위 임순택사무차장, 인천공대 학생등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이 조금은 어렵기는 했지만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언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2007 제4회 평화사랑방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0/23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와 함께 하는 제5회 평화카페

△ 사회를 보고 있는 이은직 분회장

10월23일 오후7시, 삶이 보이는 창에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님을 모시고 DMZ사진을 통해 본 유엔사의 진실과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라는 주제로 제5회 평화카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정섭사무국장의 개사곡 따라배우기로 평화카페를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 모두 다같이 되찾자~ 작통권! 우리 모두 다같이 해체해~ 유엔사! "

" 우리 모두 다같이 쫓아내~ 주한미군! 우리모두 다같이 끝장내~ 한미동맹!"

두 번째 순서로 '껍데기만 돌려준다고?-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에 대한 김강연부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림과 도표를 이용하여 어려운 내용들을 조리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아야 평화 변영 통일의 길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비교 설명하였습니다.

△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이패'결판'

세 번째로 놀이패 '결판'의 '이 연사 외칩니다!'라는 연설극이 있었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10.4선언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 쫓아내고 한미 동맹 폐기하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복한 인민배우의 시 낭송과 차베스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를 통해 재미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가슴속 얘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 흥미진진하게 보면서도 즐거워 하는 참가자들

△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이시우 선생님

이번 평화카페의 하이라이트 'DMZ사진을 통해 본 유엔사의 진실'을 평화운동가이자 사진작가인 이시우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시우작가는 "내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 아픈 곳이 치유될 때까지 신경은 아픈곳에 집중됩니다. 아픈 곳에는 사회모순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곳이 시대의 중심입니다. 유엔사는 우리 역사의 또 하나의 아픈 곳, 상처이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끌어 안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과 행동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 올수 있을 것입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시우 작가는 정전협정 원문을 소개하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부터 남쪽은 유엔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있다. 유엔사령관은 미국정부의 허락을 말아야 하는 존재로 유엔사령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미국정부이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것은 한반도 위기관리권

한을 가지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첩보선 프에블로호가 납포되었을 때, 관문 점 미루나무 도끼사건 때에도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전쟁상황으로 물고 갔다. 위기관리권한이 유엔사령관에 있는한 우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유엔사에 의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가지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는 참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찾아야만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려 1시간 넘게 진행된 강의였지만 참가자 모두가 이시우작가님의 생생하고 진지한 강의에 빠져 들었다. 강의를 끝난후 작년 이시우님과 함께 평화기행을 준비하면서 인연을 맺은 통일분회 분회원들이 옥고를 치루신 이시우님께 작은 선물을 드렸다.

행사가 끝나고 준비된 술과 음식을 나누며, 오늘 카페를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뒤풀이 시간을 가지고 제5회 평화카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시우님과 함께 한 제5회 평화카페에는 다른 때와 달리 지역 단체분들과 주변동료 신입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인천시민연대 홍재웅대표님, 평통사 오혜란 대표님, 염성태 대표님, 김일회신부님(맨왼쪽부터 시계방향 순)

△ 작년 평화기행때 참석하셨던 박순애 수녀님과 어깨동무공부방 친구들

△ 새벽공부방 박영민선생님과 친구들

△ 멀리 파주에서 오신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병준 대책위원장님이 오셔서 현재 무건리 훈련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 이웃주민과 함께 참석한 신필녀회원님

△ 강화 민간인학살 유족회 서영선회장님

△ 이날 첫인사를 나누게 된 이종훈 회원님. 아마추어 사진작가도로 활동중. 이시우선생님은 "자신보다 사진기술이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 이날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관련기사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와 함께하는 제5회 평화카페

"단체협약 체결, 유해성 구속"

'정해진 열사 정신계승! 민중생존권 쟁취! 인천투쟁문화제'

10월의 마지막 날, 경인지방 노동청 앞에서는 건설일용노조 조합원 고 정해진 열사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단체협약 체결, 유해성 구속"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의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규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열사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집회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셨지만 지금의 노동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은 현실에 우리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해서 수많은 노동열사의 한을 풀자고 외쳤습니다.

이날 노동분회 회원들이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체협약 체결, 유해성 구속" '정해진 열사 정신계승! 민중생존권 쟁취! 인천투쟁문화제'

[분회소식]

- 노동분회: 평화사랑방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와 정해진 열사 정신계승!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여성분회: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 유엔사 해체에 대한 교양을 14일, 28일에 진행하였습니다.
- 통일분회: 2007 남북정상회담 평통사 논평을 읽고 토론을 진행하였고, 평화카페에 참여하였습니다.

대전충남평통사

2007,가을 청계산 기행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13일, 대전충남평통사주최로 청계산의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 둘러보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행에는 대전충남평통사 회원들과 대전충남실천연대의 임재근사무국장님, 대전민족문제연구소의 서원모사무국장님과 이규복회원님 그리고 자활사업장 야베스공동체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 한미연합사의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관련기사 : 2007, 가을 대전충남평통사 평화기행<사진모음>

10.4남북공동선언 이행하는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촉구'를 위한 대전지역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난 11월6일(화), 대전충남통일연대와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9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논의될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이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작전통제권의 실질적 행사단위인 육·해·공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에는 완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3군참모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계룡대정문앞에서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이행계획에 경고의 메시지로 붉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 3군참모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원용철대전충남평통사 대표

<작전통제권 제대로 환수하기 1만인 선언 대전충남지역 보고>

- 총 497명 (대전충남평통사:65명, 지역단체:40명, 청년학생:13명, 종교:59명, 민주노동당:2명, 언론:2명, 농민:6명, 노동:259명, 개별인사:40명)

함께 해주신 모든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완전한 작전통제권을 반드시 환수하고 군사주권을 회복하는데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10.4남북공동선언 이행하는 '기만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촉구'를 위한 대전지역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

<알림>

녹슨 비무장지대를 넘어 평화로, 통일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와 함께 하는 2007,대전충남평통사 후원의 밤에 함께 하세요^^

일시 : 12월13일(목) 늦은 7시~

장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참가비 : 1만원

시린 겨울, 서로의 체온으로 열어가는 평화의 세상, 통일의 세상을 만나보세요^^

광주전남 평통사 활동보고

[나주지역 첫 모임 진행과 1만인 선언 조직을 계기로 알려진 광주전남 평통사의 대중적 토대와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

△ 광주모임

지난 10월 한 달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은 1만인 선언 조직에 박차를 가하였다. 광주, 무안, 나주, 순천, 광양, 해남지역의 회원과 지역 활동가들 남충린과 목포대학교 학생들의 노력으로 1만인 선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광주전남 평통사를 지역적 차원으로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조직하지는 못했지만 1만인 선언을 진행하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문제점'을 학습을 중심으로 10월 25일 무안 모임(9명 참석 박석분 팀장 교육), 10월 26일 나주 모임(17명 참석 박석분 팀장 교육), 10월 29일 광주 모임(10명 정동석 국장 교육)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11월 3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한 SCM 규탄 집회에 배종열 광주전남 평통사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9명의 회원이 결의 높게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나주모임

이후 1만인 선언의 성과를 모아 "미군없는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 투쟁과 광주전남 평통사 조직 기반 확대를 위한 결의를 모아나가게 집중할 것을 결의를 모으고 있다.

11월 지역 일정상의 문제로 나주지역 모임을 진행하기 힘든 조건의 발생으로 배종열 대표님과 정동석 국장, 김용성 목사와 나주지역의 박종주 선생, 이재창 교수, 안희만 국장과의 자리를 마련 평통사에서 진행하는 "미군없는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 투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12월 10일 임원 워크샵 참여와 나주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평통사 내용을 선전전하는 등의 실천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1월 26일(광주 모임), 11월 29일(무안 모임)을 통해 재차 "미군없는 평화협정 쟁취 대장정" 투쟁과 광주전남 평통사 조직 기반 확대를 위한 결의를 모아나가게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군 3함대의 목포 이전과 무안공항 개통과 더불어 광주 공군기지의 무안 이전을 지역 단체들과 더불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2008년 1월 광주전남 평통사 신년회와 2월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 전북 평통사 소식 및 향후 일정

< 민노당 전북도당 학생위원회 강연 및 순례 >

10월 6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학생위원회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과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라는 강연과 "군산 미군기지 순례" 요청에 의거 강연과 순례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평통사 박석분 교육팀장의 열띤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석분 팀장님은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과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 합의를 비교해 가며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 형식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광수 국장과 정동석 국장 1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차를 나누어 타고 <군산 미군기지>로 이동하여 <군산 기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진행한 순례는 남수라에서 시작하여 기름 유출 현장, 기지 정문을 거쳐 아파치 헬기 부대가 들어 올 장소, 하계마을까지 세 시간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둘러 보는 기지 순례를 통해 후배들과 학생회 차원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군산기지>의 심각성을 느끼는 좋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강연과 순례를 마치고 평통사에서 진행하는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에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학생위원회에서도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10/6]민주노동당 전북도당 학생위원회 강연 및 군산기지 순례

< 전북 평통사 회원 야유회 >

회원들간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회원 야유회가 우천관계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약식으로 지난 10월 14일(일)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2명이 회원이 참여하여 조출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만남의 장을 통해 전북 평통사 회원들이 보다 친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새롭게 진행될 회원소모임 >

전북 평통사 회원들의 일상적인 활동공간으로서의 회원 소모임을 아래와 같이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표 운영위원을 포함한 전북 평통사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1개 이상의 소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광수 사무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 역사여행모임, "산하"(모임장 : 양재석 운영위원)
- @ 영어학습모임, "peace"(모임장 : 조광수 사무국장)
- @ 축구모임, "peace maker"(모임장 : 김대송 운영위원)
- @ 토론모임, "공감(共感)"(모임장 : 김동우 운영위원)
- @ 여성모임(모임장 : 최영이 운영위원)
- @ 김제모임(모임장 : 송화선 회원)

향후일정

<평화강좌>

주제 : 2007년도 대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

강사 : 김민웅 교수(성공회대)

일시 : 2007년 12월 6일(목) 오후 7시

장소 : 익산YMCA 8층 강당

<전북평통사 합동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일시 : 2007년 12월 17일(월) 오후 7시

장소 : 익산 이바돔감자탕

참가대상 : 전북평통사 운영위원, 군산평통사 운영위원, 전주지역회원

지역평통사 모임과 활동_경기남부

△ 강연회 모습

평화협정 강연회 개최

지난 10월 31일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과제와 전망, 그리고 평택미군기지』를 주제로 강정구 교수님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경기남부평통사 준비모임이 평택, 안성, 오산,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 평통사의 지역조직 건설을 위해 지난 5월 10일 『한반도에 평화는 올 것인가? (북핵, 한반도 평화 그리고 평택미군기지)』를 주제로 개최한 김민웅 교수님 강연회에 이은 두 번째 강연회였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 강교수님은 “평화협정 체결은 이제 한반도 정세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주와 평화, 통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은 한반도 전쟁위협을 근본적인 원인인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결의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교수님은 “이러한 미국과 한미동맹세력에 맞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체결 투쟁에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아울러 평택지역에서는 평화협정체결 정세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운동을 보다 힘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대중적 동력이 되는 만큼 평화협정체결투쟁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연회 후 참가자들에게 황재순, 장창원, 현호현, 민영완, 장도정 등 경기남부평통사 준비위원들이 경기남부평통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강연회에 평통사 회원과 경기남부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 등 55명이 폭넓게 참가함으로써 평화협정체결투쟁의 절박성을 경기남부지역에 알리고 경기남부평통사 건설을 위한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관련기사 : [10/31]두번째 초청강연 - 강정구 교수님 "평화협정 체결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 평화군축집회에 참가한 현호현 회원.

경기남부평통사 건설에 박차

지난 11월 15일 현호현 준비위원 집에서 경기남부평통사 준비위원모임을 갖고 강정구 교수님 강연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12월 14일 경기남부평통사 준비위 결성 및 송년회, 2008년

2월 경기남부 평통사 결성 등 이후 사업일정을 확정하고 경기남부 평통사 건설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평통사를 튼튼히 결성하여 침체되어 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을 되살리고 추동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모임에 이어 현호현 준비위원 집들이를 가졌는데 현호현 준비위원이 따뜻한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새로이 참가한 이종필 준비위원이 회와 딸기를 준비해서 모두가 감동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현호현, 이종필 준비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관련기사 : [11/15]경기남부 평통사 준비위원 모임 보고

평통史(3)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전망을 모색하여,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결성하다. 1999년

홍보팀장 오미정

△ 1998. 7. 4. 토론회 "남북화해와 평화군축실현을 위하여"

△ 1998. 8. 15. 98노동자통일한마당

98년 8월 통일행사 과정에서의 쟁점은 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 구성에서의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의 가입 배제와 관변단체인 민화협이 결성된 것 두 가지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평통사는 9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새로운 조직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통일운동단체의 대표자들의 좌담회를 조직하는 등 자주통일진영의 재편 논의를 주도한다.(1998년 9월20일, 회지 통권 17호) 좌담회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한 대표자들(민족회의, 민자통, 범민련, 민주노총, 전국연합, 사월혁명회, 평통사)은 민족회의의 민화협 가입문제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민화협과 정부에 독자성을 가진 자주적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단결과 재편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한편 정의구현사제단의 일원으로 평양 장충성당 건립 10주년 기념미사를 위해 북을 방문했던 문규현 상임대표는 그 시기에 열린 북의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른다. 이전정권과 달리 북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취하며 북과 통일대축전을 함께 치르자고 했던 김대중 정권이 취임 첫 해에 저지른 행태였다.

△ 1999. 4. 15. 평통사 회원모임

99년 1월의 4차 정기총회에서 문규현 상임대표는 "평통사 5주년에 부쳐"라는 대회사에서 평통사 5년의 운동의 소박하지만 뜻대 있는 운동으로 총화하고 김대중 정부에게 일갈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말이 좋아 '포용'이니 뭐니 하지만, 여전히 북한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효과적으로 없애 나갈 군비축소나 남북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옷을 훌쩍 벗기는 방법으로써의 '따뜻한 햇볕'이라면 '차가운 바람'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99년 상반기에도 자주적 민간 통일운동진영의 재편은 '통일운동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진행되어 평통사가 새로운 통일운동협의체 건설을 제안한 지 8개월 만에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결성으로 매듭된다.(1999년 5월 7일) 자통협은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로 자주와 평화통일의 새 천년을 열어 가자!"는 창립선언문에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남북합의서를 비롯한 민족 공동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남측 민중들의 다양한 요구와 내용을 수렴하는 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연대기구"

로서 “남측 통일운동진영의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특성을 존중하는 조화로운 단결을 추구”하여 작전계획 5027 폐기, 주한미군 철수, 일본 군국주의 부활 저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합의서 이행, 연방제 방식의 통일 등의 과제를 밝혔다. 자통협은 2004년 5월 21일, 발전하는 정세에 맞춰 스스로 해소하기까지 매항리 미군 폭격장 폐쇄 투쟁, 한미소파 전면 개정 투쟁, MD 저지 투쟁, F-15K 도입 저지 투쟁, 두 여중생 투쟁 등을 주도하며 반미자주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자통협의 모든 성과와 역량이 고스란히 평통사로 계승된 것은 결성과정에서부터 보자면 당연한 일이었다.

99년 평통사는 7.4 남북공동성명발표 27주년 기념토론회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본 평화군축”을 개최하여 평화군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나갔고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하였다.

북과의 민간 교류사업도 붓물이 터지기 시작, 민주노총은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열고 판문점을 통해 남으로 왔고, 북녘 거래돕기 운동 등이 활발해졌다.

한편, 미국은 북의 금창리시설을 핵시설로 몰아가며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다. 한미연합사의 대북 작전계획 5027-98도 “(이 작전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최북단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북한의 전 영토를 점령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와 종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선제공격적 성격으로 바뀌었고, (1999년 3월 29일, 회지 통권 19호) 미일 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인 ‘주변사태법안’과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이 99년 5월 통과 되는 등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평통사는 관련 내용들을 회지(1999년 5월 27일, 통권 20호)의 특집 “5027 작전계획과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다루며 소개하였고, 규탄 집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나갔다. 하반기에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매월 둘째주 화요일 미대사관 반미연대 집회를 시작하였다. (반미연대 집회는 꼬박 8년이 넘게 진행되어 내년 1월 15일 100회를 맞게 된다.)

평화군축운동과 통일운동 등 평통사의 자체 실천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사업, 평화사랑방이나 평화아카데미 등 회원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업 등은 99년이 되자 본격화된다. 평화인권연대와의 부분통합도 이뤄졌다. 특히 99년의 95년 이후 4년간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평화아카데미는 연인원 250여명이 수강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